

#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양육스트레스, 자아인식 및 양육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Social Support, Parenting Stress, Self-perception and Parenting Behavior Perceived by Mother

김혜금(Hye-Gum Kim)<sup>1</sup>, 조혜영(Hye-Young Jo)<sup>2\*</sup>

<sup>1</sup>Department of Child Care Education, Dongnam Health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social support, parenting stress, self-perception and parenting behavior perceived by mother and provide preliminary data useful for desirable parenting behavior. For this purpose, the data of fourth wav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PSKC) including social support, parenting stress, self-perception and parenting behavior measured by 1,746 mothers with 3-year-old children were analyzed. We identified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the variables using SPSS 18.0 and AMOS 18.0 apply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Measurement model and structure model had favorable goodness of fit and the results of structure models on each path were as follows. First, parenting behavior had positive correlations with social support and self-perception but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parenting behavior and parenting stress.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self-perception was mediated by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stress and self-perception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parenting relationship. In conclusion it is required to raise awareness about the importance of development of various parent education programs and parenting behavior.

---

▲주제어(Key words) :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perceived by mother),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 (parenting stress perceived by mother), 어머니가 지각하는 자아인식(self-perception perceived by mother),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행동(parenting behavior perceived by mother)

### I. 서론

유아기는 부모에게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규칙을 배우는 시기로 부모의 양육행동은 영·유아의 성격과 도덕성 형성에 영향을 주며 궁극적으로 사회구성

원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자질과 태도를 함양한다. 유아들의 발달은 가족환경의 경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 양육자의 양육에 대한 인식 및 행동과 관련된 심리·정서적 요인에 대한 연구들이 꾸준히 진행되어지고 있다(K. W. Samuelson, C. E. Krueger, & C. Wilson, 2012). S.

---

• 본 논문은 2015년 한국가정관리학회 공동춘계학술대회에서 분과발표한 연구임.

\* Corresponding Author : Hye-Young Jo,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41-39, Bomun-ro 30ga-gil, Seongbuk-gu, Seoul 02844, Korea, E-mail: johyey@hanmail.net

Cohen and T. A. Willis(1985)는 안정, 자아존중감 등 심리 내적인 요인과 사회적 지지 등 사회 환경의 외적 요인이 주 양육자의 양육행동 변화를 도모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는 주 양육자의 양육행동은 심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과의 경험이 연관되어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양식임을 의미하는 것이다(L. F. Halpern, K. L. Brand, & A. F. Malone, 2001).

이와 관련하여, N. Darling and L. Steinberg(1993)는 주 양육자가 가지고 있는 양육과 관련된 신념, 가치 등의 심리적인 요인들은 행동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자녀 발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심리적, 물질적인 지원은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건강하고, 긍정적인 적응을 도모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A. Luszczynska & R. Cieslak, 2005). 주 양육자의 스트레스, 우울 등 부정적인 심리상태는 일관성 있는 정서적, 물질적 지지의 사회적 지지를 통해 긍정적인 적응을 도모하여(S. Cohen & T. A. Wills, 1985) 궁극적으로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을 돕는다. 마찬가지로, J. Belsky (1984)는 스트레스 등 개인의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지원의 환경적 요인 및 자녀의 특성 요인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주 양육자의 양육행동이 결정되어진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양육행동에 선행되어지는 예측변인을 알아보려고 하는 시도는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요인(T. D. Berry, S. T. Dunlap, S. J. Cotton, J. E. Lochman, & K. C. Wells, 2005; K. A. Crnic & M. T. Greenberg, 1990; M. S. Kim & H. J. Moon, 2005; S. Mondell & F. B. Tyler, 1981; M. Respler-Herman, B. A. Mowder, A. E. Yasik, & R. Shamah, 2012; E. J. Silver, A. M. Heneghan, L. J. Bauman, & R. Stein, 2006; D. M. Teit & D. M. Gelfand, 1991) 및 환경적 요인(V. C. McLoyd, 1998; H. A. Raikes & R. A. Thompson, 2005; Putten-Garden. K. Van, 2007)과 관련된 연구는 현재까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주 양육자의 바람직한 양육행동이 요구되므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환경적인 요인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필요가 제기된다.

사회적 지지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B. Gottlieb(1983)는 정서적인 영향과 언어적·비언어적 정보 또는 충고 등의 도움을 주는 기능적, 구조적 지지를 사회적 지지라 한 바 있다. S. A. Shumaker and A. Brownell(1984)은 자원의 교류가 이

루어지는 행위로서 개인의 안녕감을 향상시키는 의도라 정의한 바 있다. 그리고 J. S. House(1981)는 친밀감, 애정, 신뢰 등 정서적 지지와 긍정적 자기평가, 수용 등 평가적 지지, 사회적 서비스 제공의 정보적 지지, 그리고 실제적인 도움의 도구적 지지로 나누어 제시한 바 있다. 종합하면,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안녕감을 회복시켜 사회와의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이끄는 것이 주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지는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 정도를 의미하며 사회적 지지를 구성하는 변인은 정서적 지지, 도구적 지지, 사교적 지지, 정보적 지지 등이다. 정서적 지지는 양육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에게서 정서적으로 지지를 받는 것을 의미하며 도구적 지지는 양육과 관련한 비용이나 도움을 제공받는 것이고 사교적 지지는 서로 방문하거나 전화하고 같이 외식을 하는 등의 행위를 포함하며 마지막으로 정보적 지지는 자녀의 양육이나 살림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의미한다. 즉, 주 양육자의 양육행동은 사회적 지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회적 지지는 통제적이고, 권위적인 양육행동을 감소시켜 긍정적인 행동을 이끌기 때문에(K. A. Crnic & M. T. Greenberg, 1990; V. C. McLoyd, 1998) 결국,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K. A. Crnic & M. T. Greenberg, 1990) 중요한 변인이다. 따라서 주 양육자의 양육행동은 자녀 발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영·유아기에 형성된 안정된 애착은 성장하는 가운데 긍정적인 관계형성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J. Bowlby, 1971) 사회적 지지는 양육행동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K. A. Crnic & M. T. Greenberg, 1990; V. C. McLoyd, 1998; H. A. Raikes & R. A. Thompson, 2005; E. J. Silver et al., 2006). 하지만 H. A. Raikes and R. A. Thompson(2005)은 사회에서의 지원이 부재한 가정에서는 항상 부정적인 양육행동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 아님을 밝히면서, 주 양육자의 심리적 요인에 의해 보완이 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양육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되거나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우리사회는 조기교육의 열풍 속에서 높은 수준의 양육과 관련된 책임 및 역할은 주 양육자로 하여금 부담감을 갖게 하여 양육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T. D. Berry et al., 2005; K. A. Crnic & M. T. Greenberg, 1990; M. S. Kim & H. J. Moon, 2005; C. McMahan & E. Meins, 2012; A. V. McPherson, K. M. Lewis, A. E.

Lynn, M. E. Haskett, & T. S. Behrend, 2009; M. Respler-Herman et al., 2012). 주 양육자의 낮은 양육스트레스는 보다 적극적인 양육행동을 수반하는 반면, 높은 양육스트레스는 통제적이고, 권위적인 행동을 야기하여 (M. S. Kim & H. J. Moon, 2005) 결국, 양육스트레스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K. A. Crnic & M. T. Greenberg, 1990; C. McMahon & E. Meins, 2012) 자녀의 전반적인 발달에 저해요소가 된다(A. V. McPherson et al., 2009; E. J. Silver et al., 2006). 유아기는 총체적인 발달을 위한 결정적 시기이므로 주 양육자의 자녀에 대한 양육스트레스는 이들 발달에 역기능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할 필요가 제기된다(P. R. Abidin, 1990). 또한, 경제적·심리적, 사회적 지원은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은 양육의 패턴이 일관적이지 못하고, 권위적이거나 복종 및 통제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V. C. McLoyd, 1998). 주 양육자의 높은 양육스트레스는 엄격한 양육행동을 이끌어(L. F. Halpern et al., 2001) 결국, 양육스트레스를 유발하게 하여 자녀의 문제행동을 야기할 수 있다(T. D. Berry et al., 2005; L. F. Halpern et al., 2001; S. Chih-Yuan. Lee, J. A. Lee, & J. Gerald, 2011; C. M. Rodriguez, 2011).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게 되는 양육스트레스는 양육자의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야기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자녀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행동에 역기능적인 요인임을 예측할 수 있다(P. R. Abidin, 1990; C. M. Rodriguez, 2011). 그런데, 적절한 사회적 지지는 양육스트레스의 감소와 더불어 긍정적인 양육행동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Putten-Garden. K. Van, 2007)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적인 변인이며(T. D. Berry et al., 2005; M. S. Kim & H. J. Moon, 2005), 사회적 지지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매개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자아인식은 환경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평가하며(C. H. Cooley, 1902) 자신의 감정을 알고 조절할 수 있다고 느끼는 능력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되는데(V. Dulewicz & M. Higgs, 1999), 자아인식은 구체적으로 자아존중감과 자아효능감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자기-가치의 판단(judgement of self-worth)'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스스로를 존중하고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느끼며(M. Rosenberg, 1965)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것이다(S. Coopersmith, 1967). 자아효능감은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보고 개인이 특수한 상황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A. Bandura, 1977).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는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여, 보다 일관적인 양육이 이루어져 질 높은 상호작용을 도모한다(S. Mondell & F. B. Tyler, 1981; D. M. Teit & D. M. Gelfand, 1991). 또한 어머니의 높은 자아존중감은 어머니가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을 비롯한 심리적 불안정에 따른 부정적인 정서를 중재하여 긍정적인 양육행동으로 이끈다(J. Belsky, 1984). 즉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효능감은 양육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S. Cohen & T. A. Wills, 1985; S. Mondell & F. B. Tyler, 1981; D. M. Teit & D. M. Gelfand, 1991)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완화시킨다(J. Belsky, 1984).

자아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지지에 의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음으로써(M. K. Demaray, C. K. Malecki, S. Y. Rueger, S. E. Brown, & K. H. Summers, 2009; S. Suzuki, 2010)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이끈다. 즉,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일수록 스트레스의 극복이 원활하기 때문에(S. A. Haslam, 2004; S. A. Haslam, J. Jetten, A. O'Brien, & E. Jacobs, 2004; A. Luszczynska & R. Cieslak, 2005; S. Suzuki, 2010)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켜 (S. Suzuki, 2010) 보다 안정적인 심리상태를 유지하게 하여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형성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효능감의 매개적 역할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효능감을 자아인식으로 정의하고 어머니의 자아인식이 사회적 지지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녀에게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며 자녀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이에 대해 설명을 통해 알려줌으로써 민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수용적이고 지지적인 유형이 있는 반면, 자녀의 요구를 무시하거나 부모의 요구대로 제한하며 자녀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엄격한 훈육방법을 적용하고 부모의 기준으로 자녀의 행동을 제한하는 통제적인 유형이 있다. 한국 사회는 유교의 전통이 사회문화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발달과 관련한 선행연구(T. D. Berry et al., 2005; S. R. Kim, J. M. Hong, & H. k. Hong, 2010; H. M. Lee, 2005; K. R. Ry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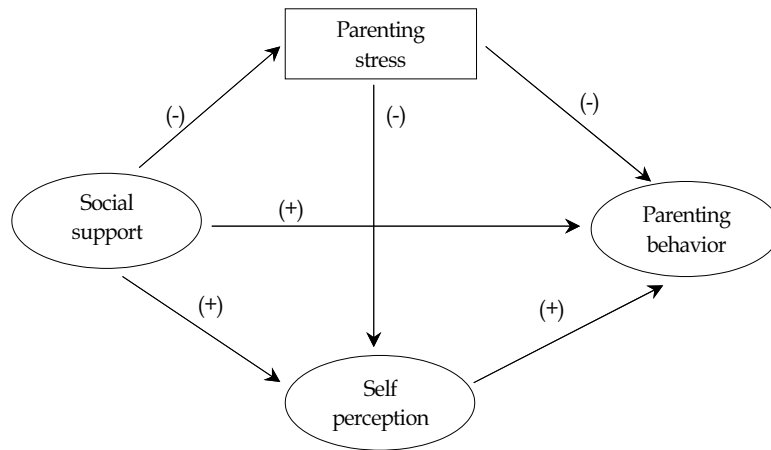


Figure 1. Theoretical Model among Social Support, Parenting Stress, Self-perception and Parenting Behavior Perceived by Mothers

2012)에 의하면, 통제적이거나 권위적인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성격형성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주 마찰을 빚거나 의존적이거나 공격적인 성향을 지니게 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성격형성 및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요인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상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자녀 발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져 왔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연구를 살펴보면, 양육행동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K. A. Crnic & M. T. Greenberg, 1990; M. S. Kim & H. J. Moon, 2005; M. Respler-Herman et al., 2012)와 자아인식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S. Mondell & F. B. Tyler, 1981; D. M. Teit & D. M. Gelfand, 1991)를 통하여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와 양육 및 심리적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S. A. Haslam, 2004; S. A. Haslam et al., 2004; A. Luszczynska & R. Cieslak, 2005; H. A. Raikes & R. A. Thompson, 2005; E. J. Silver et al., 2006; S. Suzuki, 2010; Putten-Garden. K. Van, 2007), 그리고 양육관련 척도개발 연구(K. H. Kim & H. K. Kang, 1997)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양육은 주로 여성의 역할과 책임으로 여겨지고 있다. 유아기의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관계와 질 높은 상호작용은 자녀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

여 성인이 되어서 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R. W. Kamphaus & C. R. Reynolds, 2006)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변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는 자녀의 부모는 스트레스가 높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가정환경이며(T. D. Berry et al., 2005), 양육행동 역시 권위주의적이기 때문에 자녀의 바람직한 행동에 있어서 취약함을 나타낸다(L. F. Halpern et al., 2001). 그래서 S. Cohen and T. A. Wills(1985)가 제시한 바와 같이, 주 양육자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바람직한 행동으로 이끌기 위해 이를 중재할 수 있는 스트레스, 우울, 자아존중감 등과 같은 심리적 요인 및 사회적 지지의 환경적 요인과 양육행동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경로모형을 <Figure 1>과 같이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이끌고, 양육스트레스의 수준을 낮추며, 긍정적인 자아인식을 도모하는 것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사회적 지지, 양육스트레스, 자아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동시에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와 자아인식을 매개로 하여 양육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적 고찰을 기반으로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양육스트레스 및 자아인식, 양육행동 간의 구조적 관련성을 검증하여 어머니의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돕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양육스

트레스 및 자아인식, 양육행동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양육스트레스 및 자아인식, 양육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2011, 이하 KICCE)의 한국아동패널 4차년도에 참여한 2,150명의 만 3세아 자녀를 둔 어머니 자료 중 무응답 결측치를 제외한 1,746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인구학적 배경의 특성을 <Table 1>에 제시하였다.

2. 연구도구

1)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J. R. Lee and S. W. Ok(2001)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사용한 도구를 KICCE(2011)에서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한 것을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해 문항 구성내용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 절차(T. H. Kang, H. Y. Jo, & M. A. Oh, 2013)에 따라 사교회전(oblique)의 방법인 promax와 최대우도법(Method of 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요인부하량 .3이하의 문항을 제외(P. Kline, 1994)하여 총 12문항 3요인이 추출되었다(KMO 값 .939 / Battlett 구형성 검증값 12683.890,  $p < .001$ ). 요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요인은 ‘심리 및 경제적 지원’(예: ‘내가 외로울 때 솔직히 털어 놓고 의지 할 수 있

다’, ‘내가 급하게 돈을 써야 할 때 빌려준다’ 등)이며, 2요인은 ‘정보적 지원’(예: ‘자녀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살림살이나 취미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준다’ 등)이다. 3요인은 ‘여가·도구적 지원’(예: ‘큰일이 있어서 일손이 필요할 때 도와준다’, ‘여가나 휴가 때 같이 놀러간다’ 등)이며, 유아교육 전문가 1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은 ‘심리 및 경제적 지원’(5문항), ‘정보적 지원’(3문항), ‘여가·도구적 지원’(4문항)으로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사회적 지지 척도 하위영역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alpha$ 를 살펴보면, 심리 및 경제적 지원 .870, 정보적 지원 .857, 여가·도구적 지원 .838로 나타났다.

2)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하여 K. H. Kim and H. K. Kang(1997)이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요인’, ‘타인 양육에 대한 죄책감’의 3요인으로 개발한 것을 KICCE(2011)에서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만을 사용하여 조사한 도구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양육스트레스 척도는 단일요인이며, 아동패널단에서 양호도를 검증(예: ‘나를 성가시게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 문항삭제, ‘모임에 가면서도 아이 때문에 그리 즐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항추가)하였으며, 총 11문항으로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양육스트레스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874로 나타났다.

3) 자아인식

자아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T. Mainieri(2006)의 자기 효능감 척도(The Pearlin Self-Efficacy Scale)와 M. Rosenberg (1989)의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Table 1. Demographics of The Participants

	Range	frequency(%)	N
Mother’s age	Under 30	290(13.5)	1,729
	31-35	908(42.2)	
	36-40	462(21.5)	
	Over 41	69( 3.2)	
Mother’s education	Under high school	533(24.8)	1,746
	College	455(21.2)	
	University	669(31.1)	
	Over graduate school	89( 4.1)	
Mother’s job	Working	641(92.4)	694
	Not working	53( 7.6)	

Scale)를 KICCE(2011)에서 일부내용을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아동패널단에서 사용한 자아인식은 자아효능감과 자아존중감 요인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양호도가 검증된 도구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 직접 사용하였다. KICCE(2011)에서 사용된 '자아효능감'의 부정적 문항(예: '내가 가진 문제들 중 몇몇 문제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다', '나는 살면서 때때로 뭔가에 휘둘리는 느낌을 받는다' 등)와 '자아존중감'의 부정적 문항(예: '대체로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등)를 역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아인식의 하위영역은 '자아효능감'(4문항), '자아존중감'(10문항)으로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자아인식 척도 하위영역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alpha$ 를 살펴보면, 자아효능감 .814, 자아존중감 .856으로 나타났다.

#### 4) 양육행동

양육행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M. H. Bornstein(1989), M. H. Bornstein et al.(1996), H. M. Lee(2005)가 사용한 도구를 KICCE(2011)에서 B. H. Cho, J. S. Lee, H. S. Lee and H. K. Kwon(1999)의 도구를 참고로 수정·보완한 것을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해 문항 구성내용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 절차(T. H. Kang et al., 2013)에 따라 사교회전(oblique)의 방법인 promax와 최대우도법(Method of 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요인 부하량 .3이하의 문항을 제외(P. Kline, 1994)하여 총 16 문항 2요인이 추출되었다(KMO 값 .892 / Battlett 구형성 검증값 10244.073,  $p < .001$ ). 요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요인은 '지지형'(예: '나는 우리 아이와 함께 놀면서 시간을 보낸다', '나는 우리 아이에게 긍정적이고 애정적이며 따뜻한 관심을 보인다' 등)이고, 2요인은 '통제형'(예: '나는 아이가 내 말에 순종하도록 한다', '나는

가정교육을 위해 아이의 행동을 제한한다' 등)이며, 유아교육 전문가 1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통제형의 경우, 역산하여 점수가 낮을수록 통제형 양육행동을 갖는다고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양육행동의 하위영역은 '지지형'(9 문항), '통제형'(7문항)으로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양육행동 척도 영역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alpha$ 를 살펴보면, 지지형 .874, 통제형 .779로 나타났다.

###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분석은 SPSS 18.0과 AMO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였으며, 사회적 지지, 양육스트레스, 자아인식,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도구의 내적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을 실시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통해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종단연구에서 발생하게 되는 결측치 처리를 위해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사용한 후, 사회적 지지와 양육스트레스 및 자아인식, 양육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본 연구의 결과를 알아보기 전, 사회적 지지, 양육스트레스, 자아인식, 양육행동의 평균(M) 및 표준편차(SD)를 알아보았다. <Table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적 지

Table 2. Means and Standard Deviation of Social Support, Parenting Stress, Self-perception, and Parenting Behavior Perceived by Mothers

Variables		M	SD
Social support	Psychological and economic support	3.82	.69
	Informational support	3.74	.73
	Leisure · instrumental support	3.86	.69
Parenting stress		2.79	.64
Self perception	Self esteem	3.65	.72
	Self efficacy	3.73	.56
Parenting behavior	Supportive behavior	3.80	.49
	Controlled behavior	2.60	.49

지, 양육스트레스, 자아인식, 양육행동 변인의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의 심리 및 경제적 지원 평균은 3.82점(SD=.69)이고, 정보적 지원 평균은 3.74점(SD=.73)이며, 여가·도구적 지원 평균은 3.86점(SD=.69)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 평균은 2.79점(SD=.64)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인식의 자아존중감 평균은 3.65점(SD=.72)이고, 자아효능감 평균은 3.73점(SD=.56)으로 나타났다. 양육행동의 지지형 평균은 3.80점(SD=.49)이고, 통제형 평균은 2.60점(SD=.49)으로 나타났다.

1.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양육스트레스, 자아인식 및 양육행동 간의 관계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양육스트레스, 자아인식 및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양육행동 변인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지형은 사회적 지지의 심리 및 경제적 지원( $r=.361, p<.01$ ), 정보적 지원( $r=.353, p<.01$ ), 여가·도구적 지원( $r=.370, p<.01$ )과 자아인식의 자아효능감( $r=.345, p<.01$ ), 자아존중감( $r=.455, p<.01$ )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반면, 양육스트레스( $r=-.547, p<.01$ )와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통제형은 사회적 지지의 심리 및 경제적 지원( $r=-.154, p<.01$ ), 정보적 지원( $r=-.188, p<.01$ ), 여가·도구적 지원( $r=-.188, p<.01$ )과 자아인식의 자아존중감( $r=-.133, p<.01$ )과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아인식의 변인에 따라 살펴보면, 자아효능감은 사회적 지지의 심리 및 경제적 지원( $r=.323, p<.01$ ), 정보적 지원( $r=.252, p<.01$ ), 여가·도구적 지원( $r=.263, p<.01$ )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반면, 양육스트레스

( $r=-.470, p<.01$ )와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지지의 심리 및 경제적 지원( $r=.436, p<.01$ ), 정보적 지원( $r=.373, p<.01$ ), 여가·도구적 지원( $r=.393, p<.01$ )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반면, 양육스트레스( $r=-.488, p<.01$ )와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양육스트레스는 심리 및 경제적 지원( $r=-.293, p<.01$ ), 정보적 지원( $r=-.261, p<.01$ ), 여가·도구적 지원( $r=-.261, p<.01$ )과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2.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양육스트레스, 자아인식 및 양육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1) 측정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 측정변수가 1개인 양육스트레스를 제외한 관찰변수가 잠재변수인 사회적 지지, 자아인식, 양육행동의 개념을 반영하는 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모형 분석을 실행하여 <Table 4>와 <Figure 2>에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TLI와 CFI는 .9이상이고, RMSEA 값은 .05~.08일 때 적합도 지수가 양호하다고 해석한다. 또한, X<sup>2</sup>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 $p<.001, p<.01, p<.05$ )하다는 것은 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내므로, 모형에 적합하지 않지만 X<sup>2</sup> 값은 N 값에 민감하기 때문에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의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X<sup>2</sup>=76.356(df=11,  $p=.000$ ), TLI=.977, CFI=.988, RMSEA=.053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X<sup>2</sup>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여 살펴봤을 때,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자료를 비교적 잘 설명하고 있다고 해석되어 질 수 있다.

사회적 지원과 자아인식 및 양육행동의 측정모형을 분석한 결과를 <Figure 2>에 제시하였다.

Table 3. Correlations among Social Support, Parenting Stress, Self-perception, and Parenting Behavior Perceived by Mothers

Variables	1	2	3	4	5	6	7	8
<b>Social support</b>								
1. Psychological and economic support	1							
2. Informational support	.703**	1						
3. Leisure · instrumental support	.745**	.701**	1					
<b>Parenting stress</b>								
4. Parenting stress	-.293**	-.261**	-.261**	1				
<b>Self perception</b>								
5. Self efficacy	.323**	.252**	.263**	-.470**	1			
6. Self esteem	.436**	.373**	.393**	-.488**	.491**	1		
<b>Parenting behavior</b>								
7. Supportive behavior	.361**	.353**	.370**	-.547**	.345**	.455**	1	
8. Controlled behavior	-.154**	-.188**	-.188**	0.046	-0.018	-.133**	-.196**	1

\*\* $p < .01$

Table 4. Model Fit Statistics

Fit indices	$\chi^2$	df	p	TLI	CFI	RMSEA
Value	76.356	11	.000	.977	.988	.0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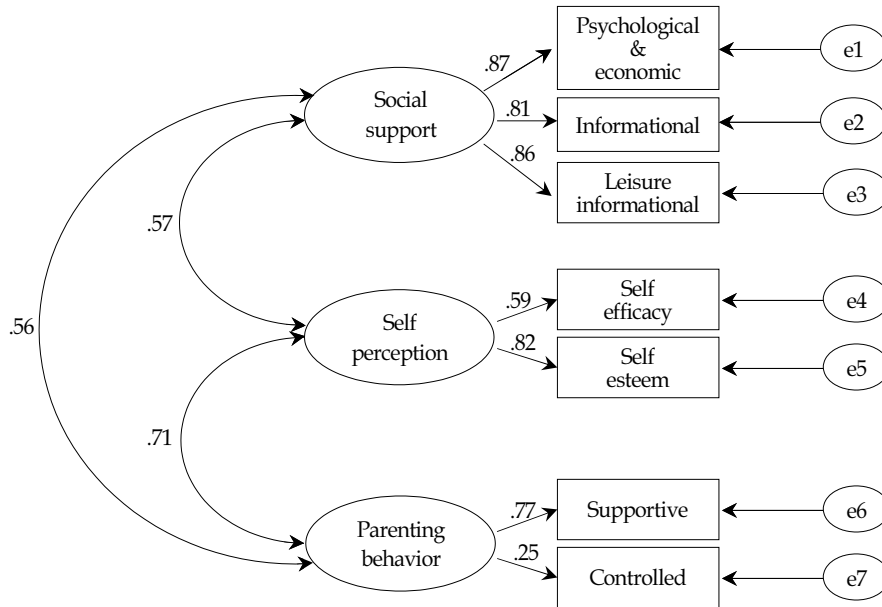


Figure 2. Model Fit Statistics

2) 구조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Table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chi^2=137.198(df=15, p=.000)$ ,  $TLI=.965$ ,  $CFI=.981$ ,  $RMSEA=.062$ 로 나타났다. 따라서,  $\chi^2$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여 살펴보았을 때,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자료를 비교적 잘 설명하고 있다고 해석되어 질 수 있다.

사회적 지지와 양육스트레스 및 자아인식, 양육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Figure 3>에 제시하였다.

다음 <Table 6>은 사회적 지지와 양육스트레스 및 자아인식, 양육행동 간의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이다. 잠재변수(사회적 지지, 양육스트레스, 자아인식, 양육행동) 각각에 대한 측정변수들의 표준화계수( $\beta$ )는 -.53부터 .42 범위에 있으며, 임계치(C.R.)는 모든 변수가 기준치  $\pm 1.96$  이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잠재변수들 간의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beta=-.32, p<.001$ ), 사회적 지지가 자아인식에 미치는 영

향( $\beta=.42, p<.001$ ), 양육스트레스가 자아인식에 미치는 영향( $\beta=-.53, p<.001$ ), 사회적 지지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beta=.17, p<.001$ ), 자아인식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beta=.27, p<.001$ ),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beta=-.32, p<.001$ )은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음 <Table 7>은 잠재변수들 간의 영향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직·간접효과와 총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잠재변수들 간의 직·간접효과와 총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 방법을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 $\beta=-.32, p<.001$ )으로 영향을 미치며, 자아인식에는 직접적( $\beta=.42, p<.001$ ), 간접적( $\beta=.17, p<.001$ )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는 자아인식에 직접적( $\beta=-.53, p<.001$ )으로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지지는 양육행동에 직접적( $\beta=.17, p<.001$ ), 간접적( $\beta=.26, p<.001$ )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행동에 직접적( $\beta=-.32, p<.001$ ), 간접적( $\beta=-.14, p<.001$ )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인식은 양육행동에 직접적( $\beta=.27, p<.001$ )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Model Fit Statistics

Fit indices	$\chi^2$	df	p	TLI	CFI	RMSEA
Value	137.198	15	.000	.965	.981	.0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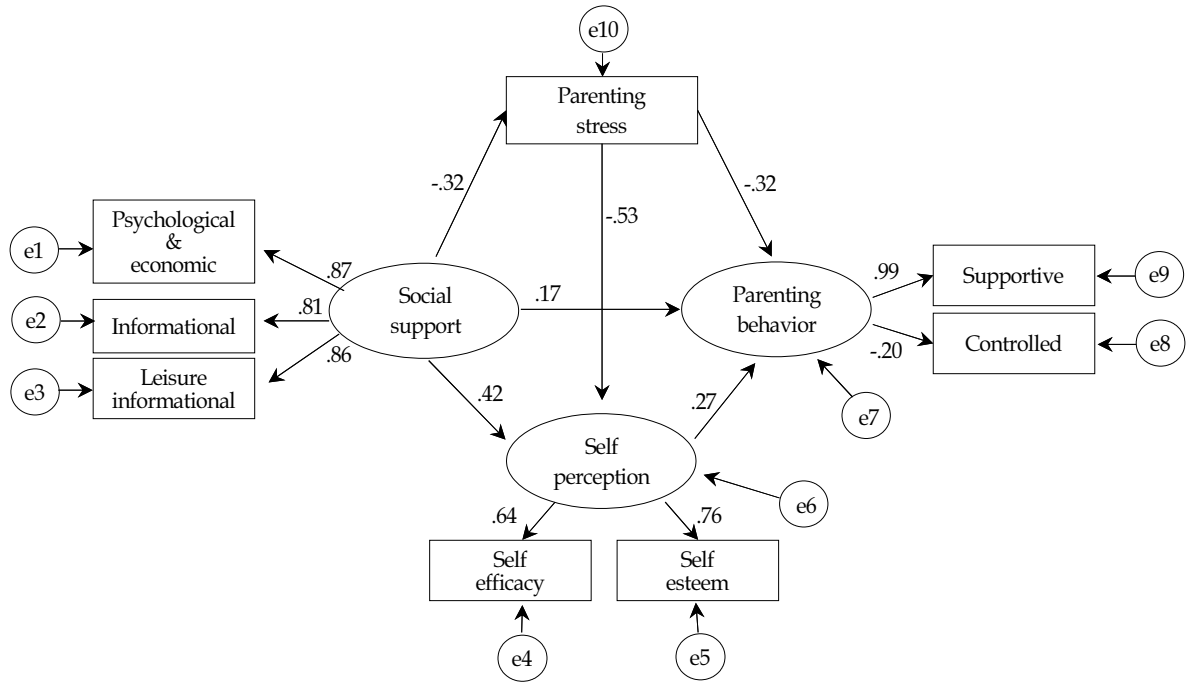


Figure 3. Structural Model among Social Support, Parenting Stress, Self-perception, and Parenting Behavior Perceived by Mothers

Table 6. Path Coefficient of Structural Model among Social Support, Parenting Stress, Self Perception, and Parenting Behavior Perceived by Mothers

Path	B	$\beta$	S.E.	C.R.	p
Parenting stress ← Social support	-.35	-.32	.02	-14.38	***
Self perception ← Social support	.30	.42	.02	17.06	***
Self perception ← Parenting stress	-.36	-.53	.02	-23.14	***
Parenting behavior ← Social support	.14	.17	.02	6.20	***
Parenting behavior ← Self perception	.30	.27	.05	6.05	***
Parenting behavior ← Parenting stress	-.24	-.32	.02	-10.83	***
Supportive behavior ← Parenting behavior	1.00	.99			
Controlled behavior ← Parenting behavior	-.20	-.20	.04	-5.76	***
Self esteem ← Self perception	1.00	.76			
Self efficacy ← Self perception	1.07	.64	.04	24.49	***
Leisure · instrumental support ← Social support	1.00	.86			
Informational support ← Social support	1.00	.81	.02	43.30	***
Psychological and economic support ← Social support	1.01	.87	.02	46.53	***

\*\*\*p < .001

Table 7. Standardized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for All Variables

	Path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Parenting stress	←	Social support	-.32		-.32
Self perception	←	Social support	.42	.17	.59
Self perception	←	Parenting stress	-.53		-.53
Parenting behavior	←	Social support	.17	.26	.43
Parenting behavior	←	Parenting stress	-.32	-.14	-.46
Parenting behavior	←	Self perception	.27		.27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만 3세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 양육스트레스 및 자아인식의 구조적 관련성을 검증함으로써 어머니의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양육스트레스 및 자아인식,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양육행동은 사회적 지지 및 자아인식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반면, 양육스트레스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지며 자아인식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반대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아지며 어머니의 자아인식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즉, 변인은 상이하지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자아개념 간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고 밝힌 M. K. Demaray et al.(2009)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낮은 자아개념은 사회적 지원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이들의 자아개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을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양육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K. A. Crnic and M. T. Greenberg(1990)와 M. Respler-Herman et al.(20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양육스트레스는 바람직한 양육의 저해요인임을 밝힌 P. R. Abidin(1990)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양육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보인다는 M. S. Kim and H. J. Moon(2005)의 연구결과와 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와 양육자 간의 질 높은 상호작용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일관적인 양육행동이 나타남을 밝힌 S. Mondell and F. B. Tyler(1981), 그리고 D. M. Teit and D. M. Gelfand(1991)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함께한다. 결론적으로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성장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T. D. Berry et al., 2005; S. R.

Kim et al., 2010; K. R. Ryou, 2012), 신념, 의욕, 경향성과 같은 심리상태와 부정적인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 있어서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증가시키는 변인이다(C. McMahon & E. Meins, 2012). 결국, 양육행동은 자녀의 성장발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양육스트레스를 낮추어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예컨대,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부모교육의 내용을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제시한 후, 자녀의 발달 특성 및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 등 불안정한 심리상태는 자녀와의 불안정 애착관계를 야기하여 부정적인 발달을 초래한다. 때문에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상담을 통하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주된 원인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개별 심리치료 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의 심리상담 지원을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제공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양육스트레스 및 자아인식, 양육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본 결과, 사회적 지지는 양육행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지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는 양육스트레스와 자아인식에 의해 부분 매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중요한 변인이며(S. A. Haslam, 2004; S. A. Haslam et al., 2004; A. Luszczynska & R. Cieslak, 2005), 궁극적으로는 바람직한 행동을 이끈다고 해석되어 질 수 있다. 즉, 사회적 지지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주 양육자의 심리적 요인에 의해 강화되거나 통제될 수 있음을 제안한 H. A. Raikes and R. A. Thompson (2005)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의 심리요인은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받는 중요한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가 낮을 때, 높은 자아인식은 스트레스 등의 부정적인 요인을 완충시켜 궁극적으로는 바람직한 행동을 이끈다고 주장한 A. Luszczynska and R. Cieslak(2005)와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양육에 대한

자기 효능감을 높인다는 S. Suzuki(2010)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함께한다. 즉, 사회적 지지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어 양육스트레스의 변인을 낮춰주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주 양육자의 정서적인 안정감을 위하여 웰빙(well-being)을 통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양육스트레스는 주 양육자의 비일관적인 양육 행동 및 자녀에 대한 거부적인 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밝힌 K. A. Crnic and M. T. Greenberg(1990)와 C. McMahon and E. Meins(2012)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변인은 상이하지만, 사회적 지지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양육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밝힌 P. R. Abidin(1990)의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자녀들의 문제해결 능력과 감정조절 능력을 높여주는 예측 변인으로 나타난 반면(K. W. Samuelson et al., 2012), 부모의 부정적인 정서는 자녀의 부정적인 감정을 이끄는 것으로 조사되었다(C. Valiente, K. Lemery-Chalfant, & J. Swanson, 2009). 그리고 Putten-Garden. K. Van(2007)은 양육행동 등 독특한 행동 양식은 교육으로 충분히 보완되어 변화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어머니의 정서적 기능이 자녀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들이 긍정적인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빈곤으로 인한 사회적 지지의 부재는 긍정적인 심리적 요인으로 충분히 완화되므로 우울, 스트레스 등 부정적 심리 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 및 가족캠프, 힐링(healing) 프로그램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긍정적인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부모의 양육행동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는 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통해 완화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기 때문에(K. A. Crnic & M. T. Greenberg, 1990; K. E. Grant et al., 2006; S. Chih-Yuan. Lee et al., 2011; C. McMahon & E. Meins, 2012) 우선적으로 자녀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위해 유아들의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하여 주 양육자와 자녀 간의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놀이중심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찬가지로 다양한 형태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부모교육에 대한 내실화를 기하여 만족도 제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즉,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모교육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배전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예컨대, 외부 전문가의 초빙 및 강의식의 부모교육을 탈피하여 부모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세미나(seminar), 워크샵(workshop), 토론회 등 질의응답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실질적

인 생활주제로 운영한다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부모교육이 가능하다. 다음으로는 양육행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양육행동의 중요성에 대하여 유아교육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유아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홍보 전략의 수립을 통해 올바른 자녀양육을 위한 방안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유아교육기관 또는 생활거주지의 문화시설을 거점으로 하여 찾아가는 부모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높은 수준의 양육과 관련된 책임 및 역할에 대해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높은 사회적 지원은 스트레스를 줄여주어(S. A. Haslam, 2004; S. A. Haslam et al., 2004; A. Luszczynska & R. Cieslak, 2005; S. Suzuki, 2010) 건 강한 자아를 형성 할 수 있다. 그리고 동질적인 집단이라 인식할수록 필요한 정보들의 공유가 수월하여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데(S. A. Haslam, 2004; S. A. Haslam et al., 2004) 특히, 공통관심사를 가진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 간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들이 함께 모여 활동할 수 있는 모임의 장을 구축하는 등의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는 양육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인적 자원과의 관계형성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H. F. Byrnes & B. A. Miller, 2012) 인적 네트워크(network) 구축에 초점을 두어 지원한다면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지지가 정서와 행동의 사회적 기능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예측변수로 나타난바 있는데(M. Popliger, J. R. Toste, & N. L. Heath, 2009) 특히,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SES)는 자녀의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고(T. D. Berry et al., 2005; S. Chih-Yuan. Lee et al., 2011), 주 양육자의 경제적인 스트레스는 우울을 더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어(S. Chih-Yuan. Lee et al., 2011) 결국 자녀와의 관계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회적 지원은 가족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M. I. Armstrong, S. Birnie-Lefcovitch, & M. T. Ungar, 2005), 우울을 감소시킴으로써 양육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C. D. Gjesfeld, C. G. Greeno, K. H. Kim, & C. M. Anderson, 2010). 따라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 지원 등의 다양한 지지를 제공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문화활동은 바람직한 성장을 도모하기 때문에 유아기 자녀와 주 양육

자가 함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어린이 도서관, 어린이 박물관, 어린이 영화관 등의 영·유아가 주체가 되어 놀이를 통해 상호작용을 이끄는 문화시설의 확충은 주 양육자들이 바람직한 양육행동과 관련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자녀들의 건강한 발달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문화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바우처제도를 도입하여 지원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어린시기부터 자연스럽게 문화를 접하게 되므로 창의적인 인재로서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어머니의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낮추어, 보다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이끌어 낼 때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KICCE(2011)의 4차년도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양육스트레스 및 자아인식과 양육행동 간의 구조적 관련성을 검증하여 그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 용이하다는 점에 의의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양육스트레스, 자아인식의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지지의 환경적 요인이 어떤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다각적인 시각을 제시했다는 점과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위한 다양한 방안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중요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몇 가지 연구한계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와 자아인식의 변인만을 심리적 요인으로 사용하여 다양한 변인들을 사용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양육행동과 관계가 있는 우울, 부부관계 및 만족도 등의 심리적 요인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측정척도의 과소 또는 과대 측정의 우려가 야기될 수 있는 자기보고식 설문지와 관련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면담 및 관찰을 병행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 Abidin, P. R. (1990).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the stress of parenting.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4), 298-301.
- Armstrong, M. I., Birnie-Lefcovitch, S., & Ungar, M. T. (2005). Pathways between social support, family well being, quality of parenting, and child resilience: What we know.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4*(2), 269-281.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1), 83-96.
- Berry, T. D., Dunlap, S. T., Cotton, S. J., Lochman, J. E., & Wells, K. C. (2005). The influence of maternal stress and distress on disruptive behavior problems in boys. *Journal of American Academic Child Adolescent Psychiatry, 44*(3), 265-273.
- Bornstein, M. H. (1989). Between caretakers and their young: Two modes of interaction and their consequences for cognitive growth. In M. J. Bornstein & J. S. Bruner (Eds.), *Interaction in human development: Behavioral and biological perspective* (pp. 147-170).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ion Inc.
- Bornstein, M. H., Tamis-LeMonda, C. S., Pascual, L., Haynes, M. O., Painter, K. M., Galperin, C. Z., & Pecheux, M. G. (1996). Ideas about parenting in Argentina,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9*(2), 347-367.
- Bowlby, J. (1971) *Attachment and loss: Vol I Attachment*. Harmondsworth: Penguin.
- Byrnes, H. F., & Miller, B. A.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and effective parenting behaviors: The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Family Issues, 33*(12), 1658-1687.
- Cho, B. H., Lee, J. S., Lee, H. S., & Kwon, H. K. (1999). Dimensions and assessment of Korean parenting styl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7*(10), 123-133.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 Cooley, C. H. (1902). *Human nature and the social order*. NY: Scribner's.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Freeman.
- Crni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5), 1628-1637.
- Darling, N., & Steinberg, L. (1993). Parenting style as context : An integrative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13*(3), 487-496.

- Demaray, M. K., Malecki, C. K., Rueger, S. Y., Brown, S. E., & Summers, K. H. (2009). The role of youth's ratings of the importance of socially supportive behavio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self-concep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8*(1), 13-28.
- Dulewicz, V., & Higgs, M. (1999). Can emotional intelligence be measured and developed? *Leadership & Organization Development Journal, 20*(5), 242-252.
- Gjesfeld, C. D., Greeno, C. G., Kim, K. H., & Anderson, C. M. (2010). Economic stress, social support, and maternal depression: Is social support deterioration occurring. *Social Work Research, 34*(3), 135-143.
- Grant, K. E., Compas, B. E., Thurm, A. E., McMahon, S. D., Gipson, P. Y., Campbell, A. J., Krochock, K., & Westerholm, R. I. (2006). Stressors and child and adolescent psychopathology: Evidence of moderating and mediating effect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6*, 257 - 283.
- Halpern, L. F., Brand, K. L., & Malone, A. F. (2001). Parenting stress in mothers of very-low-birth-weight (VLBW) and full-term infants: A function of infant behavioral characteristics and child-rearing attitudes.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26*(2), 93-104.
- Haslam, S. A. (2004). *Psychology in organizations: The social identity approach* (2nd ed.). London: Sage.
- Haslam, S. A., Jetten, J., O'Brien, A., & Jacobs, E. (2004). Social identity, social influence, and reactions to potentially stressful tasks: support for the self-categorization model of stress. *Stress and Health, 20*(1), 3-9.
- House, J. S. (1981).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Reading, Mass: Addison-Wesley.
- Kamphaus, R. W., & Reynolds, C. R. (2006). *Parenting Relationship Questionnaire (PRQ)*. Bloomington, MN: Pearson Assessments.
- Kang, T. H., Jo, H. Y., & Oh, M. A. (2013). A study on the use-realitie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n educational research.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25*(3), 521-541.
-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11).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PSKC) 2011*. Seoul: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Kim, K. H., & Kang, H. K. (1997). Development of the parenting stress scal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5*(5), 141-150.
- Kim, M. S., & Moon, H. J. (2005).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efficacy on parenting behaviors in mother with young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3*(8), 25-35.
- Kim, S. R., Hong, J. M., & Hong, H. k. (2010). The relations among mother's behavior toward rearing, mother's rearing-stress and self-esteem of young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ren's media, 9*(2), 113-32.
- Kline, P. (1994). *An easy guide to factor analysis*. London: Routledge.
- Lee, Chih-Yuan. S., Lee, J. A., & Gerald, J. (2011). Financial stress, parental depressive symptoms, parenting practices and children'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Underlying Processes. *Family Relations, 60*(4), 476-490.
- Lee, H. M. (2005). *The effect of maternal parenting style and sensitivity on infant develop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University, Seoul, Korea.
- Lee, J. R., & Ok, S. W. (2001). Family life events, social support, support by children, and life satisfaction of low-income female earner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9*(5), 49-63.
- Luszczynska, A., & Cieslak, R. (2005). Protective, promotive, and buffering effect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in managerial stress: The moderating role of personality. *Anxiety, Stress, and Coping, 18*(3), 227-244.
- Mainieri, T. (2006).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 Child development supplement: Userguide for CDS-II*. Retrieved from [http://psidonline.isr.umich.edu/CDS/cdsii\\_userGd.pdf](http://psidonline.isr.umich.edu/CDS/cdsii_userGd.pdf).
- McLoyd, V. C. (1998). Socioeconomic disadvantages and child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3*(2), 185-204.
- McMahon, C., & Meins, E. (2012). Mind-mindedness, parenting stress, and emotional availability in mothers of preschooler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7*(2), 245-252.
- McPherson, A. V., Lewis, K. M., Lynn, A. E., Haskett, M. E., & Behrend, T. S. (2009). Predictors of parenting stress for abusive and nonabusive mother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8*(1),

- 61-69.
- Mondell, S., & Tyler, F. B. (1981). Parental competence and styles of problem-solving/play behavior with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7*(1), 73-78.
- Popliger, M., Toste, J. R., & Heath, N. L. (2009).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domain-specific adjustment of children with emotional and behavioural difficulties. *Emotional & Behavioural Difficulties, 14*(3), 195-213.
- Raikes, H. A., & Thompson, R. A., (2005). Efficacy and social support as predictors of parenting stress among families in poverty.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6*(3), 177-190.
- Respler-Herman, M., Mowder, B. A., Yasik, A. E., & Shamah, R. (2012). Parenting beliefs, parental stress, and social support relationship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1*(2), 190-198.
- Rodriguez, C. M. (2011). Association between Independent reports of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children's internalizing symptomatology.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0*(5), 631-639.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NH: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 (1989).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Revised edition. Middletown, CT: Wesleyan University Press.
- Ryou, K. R. (2012). The relations of mother's parenting stress, parenting behavior, and parenting efficacy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The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21*(3), 231-240.
- Samuelson, K. W., Krueger, C. E., & Wilson, C. (2012). Relationships between maternal emotion regulation, parenting, and children's executive functioning in families exposed to intimate partner violenc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7*(17), 3532-3550.
- Shumaker, S. A., & Brownell, A. (1984). Toward a theory of social support: Closing conceptual gaps. *Journal of Social Issues, 40*(4), 11-36.
- Silver, E. J., Heneghan, A. M., Bauman, L. J., & Stein, R. (2006). The relationship of depressive symptoms to parenting competence and social support in inner-city mothers of young children. *Maternal and Child Health Journal, 10*(1), 105-112.
- Suzuki, S. (2010). The effects of marital support, social network support, and parenting stress on parenting: Self-efficacy among mothers of young children in Jap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Research, 8*(1), 40-66.
- Teit, D. M., & Gelfand, D. M. (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in the first year: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5), 918-929.
- Van, Putten-Garden. K. (2007). *The role of parenting attitudes, depressive symptoms, maternal education, and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hardship and parental socialization in single mother, African, American famil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United States of America.
- Valiente, C., Lemery-Chalfant, K., & Swanson, J. (2009). Children's responses to daily social stressors: Relations with parenting, children's effortful control, and adjustmen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0*(6), 707-717.

Received: July 9. 2015

Revised: September 16. 2015

Accepted: September 25. 2015